

“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!” - 간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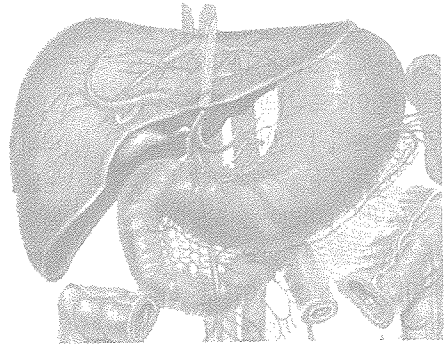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간암 유소견 현황(1999년 9월 중)

암 검진인원	지 부 별	간암 유소견자(13명)	간암 확진자(7명)
23,878명	부 산	2명	2명
	대 구	2명	1명
	인 천	1명	1명
	강 원	3명	-
	대 전 · 충 남	3명	3명
	전 북	1명	-
	광 주 · 전 남	1명	-

◎ 간암 조기 발견 사례 ◎

부산 남구의 전○○씨(남, 60세)는 건협 부산지부에서 건강 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았고, 세강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치료중에 있다.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○○씨(여, 72세) 역시 건협 부산지부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 중이다.

또 경북 영천시의 이○○씨(남)는 건협 부산지부에서 간암을 판명받았으며 현재 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.



29 ▶

◎ 간암이란 ◎

- 간암은 증상을 느낄 정도면 아주 치명적이며 진행 속도도 매우 빨라서 발견 후 평균 3~4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.
- 간암은 대부분의 환자가 간경변증이나 만성 간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암 자체의 특유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.
- 그러나 정기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이 가능하며,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암 중의 하나이다.
- 간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식욕부진 · 권태감 · 구토증 · 위압박증 · 불규칙한 소화장애 · 체중감소 등이다.
- 특히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단 간암을 의심해야 한다. 간암의 특이 증상은 복통과 간비대 · 황달 · 빈혈 · 위장관 출혈 · 복수 · 간성 혼수 등이다.
- 간암을 예방하려면 우선 간암 유발의 주범인 B형 간염의 예방에 힘써야 하며,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받아 간암으로 진행되는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한다.
- 또한 금연 · 절주 · 위생적인 생활습관 · 고른 영양 섭취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.

“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~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.”